

법무매거진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발족... 위원장에 조균석 이대 로스쿨 교수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8일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조균석(62·13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등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대검은 이날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조 위원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에 따라 검찰의 정책 수립과 추진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검찰의 각종 정책이 국민을 중심에 둘 수 있도록 충실히 검토해 자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조 교수가 맡았다. 위원은 배보윤(61·20기) 변호사,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이효원(56·23기) 서울대 로스쿨 헌법 교수, 임선숙(55·28기) 법무법인 이우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 송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완수(48·28기)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양홍



석(43·36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류경은(41·36기) 고대 로스쿨 교수, 김예원(39·41기)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등이다.

김오수(58·20기) 총장은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찰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하고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의 측면에서 변화하는 제도와 시스템에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며 “검찰정책이 국민중심으로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출처/법률신문)